

논술고사 문제지 (인문계열)

[논술고사 시간 15:00 ~ 17:00]

모집단위	학부·과	수험번호	성명
------	------	------	----

【 수험생 유의사항 】

1. 답안 작성 시 제목은 달지 말 것.
2. 수험번호, 성명 등 자신의 신상과 관련된 사항을 답안에 드러낼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함.
3. 답안 작성 시 필기구는 흑색 펜, 샤프 또는 연필을 사용할 것. (청색, 적색 펜 등 사용 불가)
다만, 수험번호와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마킹은 컴퓨터용 사인펜을 사용할 것.
4. 문제지와 답안지의 문제 번호가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할 것. (불일치 시 0점 처리)
5. 답안의 글자 수는 띄어쓰기를 포함함.
6. 답안 수정은 지우개를 사용하거나 원고지 교정부호를 사용하여야 함. (수정테이프는 사용할 수 없음)
7. 각 문항의 규정된 자수에서 200자를 초과하거나 200자 이상 부족할 시 감점 처리함.



□ 제 시 문 □

[가] 하나의 자료군(群)으로부터 항상 둘 이상의 이론적 대안이 구성될 수 있다는 것은 그동안 과학철학자들이 되풀이하여 주장해 온 것이다. 과학의 역사를 보면 이러한 일은 새로운 패러다임 발전의 초기 단계에 비교적 쉽게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초기 단계를 지나 특정 패러다임이 확고히 형성되면 과학자들은 그러한 대안을 고안하는 일을 거의 하지 않으며, 이후에도 그러한 일은 지극히 특수한 경우에만 일어난다. 하나의 패러다임이 제공하는 도구들이 패러다임이 규정하는 문제들을 풀 수 있다고 증명되는 한, 과학은 최고의 속도로 발전하며 그 도구들을 확신 있게 적용함으로써 가장 심도 있는 탐구 작업을 수행한다. 이러한 활동은 과학 지식의 범위를 확장하고 정확성을 꾸준히 높이며, 과학 장비와 기술 등을 발전시킨다. 또한 패러다임이 과학자 공동체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분야에서는 이에 대한 더 상세한 정보를 갖게 하고 정확한 관찰과 이론의 일치를 유도한다. 생산 활동에서처럼 과학에서도 기존 도구를 폐기하고 새로운 도구를 도입하는 것은 오직 이를 요구하는 경우에만 허락할 수 있는 사치이다. 도구를 바꾸어야 할 시기가 도래했다는 것은 기존 상태에 위기가 왔음을 보여주는 지표가 된다.

그러면 위기가 새로운 이론의 출현에 필수적인 선행 조건이라고 가정하고, 다음에는 과학자들이 위기에 어떻게 대응하는가를 묻도록 하자. 과학자들은 심각한 변칙 현상이 만연한 상황에 부딪혔을 때, 신념을 잃기 시작하고 이어서 다른 대안을 궁리하기 시작할지도 모르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위기로 몰고 간 그 패러다임을 바로 폐기하지는 않는다. 역사적 사실로 볼 때, 일단 하나의 과학 이론이 패러다임의 위치를 확보하게 되면, 그 이론은 그 지위를 차지할 만한 다른 후보 이론이 나타날 때에만 쓸모없는 것이 된다. 역사적으로 고찰해 보면, 과학 발전의 과정은 그 어느 이론도 자연과의 직접 비교를 통해 반증되어 폐기되는 상투적 방법으로 이루어진 적이 없다. 하나의 패러다임을 거부하는 결단은 언제나 그와 동시에 다른 패러다임을 수용하는 결단이 되며, 그 결정까지 이끌어가는 판단은 패러다임과 자연의 비교 그리고 패러다임들 간의 상호 비교라는 두 가지를 포함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런 사례는 기존 패러다임의 강력한 적응력으로 인해 발생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나] 작년에 안찰사로서 영남을 순회하던 중 경주에 당도했을 때의 일이다. 때는 정월 보름, 밤이 되자 거리가 떠들썩한 게 마치 무슨 전투라도 벌어진 듯하더니 그 왁자지껄한 소리는 새벽이 되어도 그칠 줄을 몰랐다.

사람을 붙들고 물어 보았더니 그의 대답인즉 그 고을에 예부터 ‘돌싸움’이라는 것이 있어 왔으며, 그리하여 고을 사람들은 언제나 정월 보름이면 좌우로 편대를 갈라 서로 각축전을 벌였다고 한다. 비가 쏟아지듯 싸락눈이 퍼붓듯 서로 돌팔매질을 하여 승부가 가려질 때까지 그달 내내 싸우는데, 이기면 그해 운수가 좋고 지면 나쁘기 때문에 싸울 때는 오직 싸움에만 몰두하여 그칠 줄을 모른다고 한다. 그것은 일 년의 길흉이라는 것이 그들 마음을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었다.

싸움이 일단 시작되면 돌맹이를 손에 쥐고 손에 쥐는 것은 돌맹이뿐이어서 있는 힘을 다하여 숨을 몰아 쉬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누구보다도 용감하게 가로 치달고 앞으로 돌진하고 마치 미치광이처럼 날뛰다.

던질 때는 반드시 남보다 먼저 던지고 싸움도 혹시 남 뒤질세라 자식이 아버지에게, 아우가 형에게, 친척이 친척에게, 이웃이 이웃에게 마구 돌팔매질을 퍼붓는다. 이미 너와 나로, 원수로 갈린 이상 반드시 상대와 맞서고 상대를 이겨서 내가 장해지고 내가 올라서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기에 머리가 깨져 피가 흐르고, 살갓이 찢기어 뼈가 드러나고, 머리를 싸매고 발이 갈라지고, 기가 죽고, 뺨이 빠지고 하여 구렁텅이에 쭈그리고 앉아 깊이 숨도 못 쉬게 만들어 놓아야만 비로소 마음이 시원하여 의기양양하게 “내가 이겼다. 상대는 도망쳤다. 이제 나는 금년의 길운을 차지하여 우환도 없을 것이고 질병도 없을 것이다.” 하고 좋아한다. 싸움이 끝나고 난 후에는 아버지에게 돌팔매질을 했던 자식이 말하기를 “내가 감히 아버지에게 돌팔매질한 것이 아니라 싸움 그 자체에다 돌맹이를 던졌을 뿐이다.” 한다. 아우로서 형에게 돌팔매질했던 자도, 친척으로서 돌팔매질했던 자도, 또 이웃끼리 그랬던 자들도 모두 이구동성으로 오직 싸움에 돌맹이질을 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돌팔매질을 당한 부형 쪽에서도 말하기를 “저들이 감히 내게 돌팔매질을 한 것이 아니라 싸움이었을 뿐이다. 나도 일찍이 아버지에게, 형에게 돌맹이를 던졌었다.”라고 말하고, 그 주장은 친척도 이웃끼리도 마찬가지이다. 이유는 다름 아닌 습속이 몸에 배어 있고 그 풍속이 흘러 전해온 지도 오래되어 그것이 오히려 당연한 것처럼 그들에게겐 여겨지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윤리가 말살되고 풍교(風敎)*에 손상을 주어도 그것이 이상히 여겨지질 않는 것이다.

* 풍교: 교육이나 정치의 힘으로 풍습을 잘 교화시키는 일

[다] 1999년에 도입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사용액의 일부를 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이 제도가 처음 도입될 당시에는 3년간의 한시적 적용을 목표로 했지만 이후 지속해서 연장되었다. 그 결과 1998년 30조 원에 불과했던 신용카드 소비 지출 금액은 2014년 501조 원에 이르렀다. 그런데 신용카드 사용액의 증가 추세는 2011년 이후 점차 꺾이고 있다. 애초 이 제도의 취지가 소비자의 카드 사용을 장려해 숨겨진 세원을 발굴하자는 데 있었는데 이제 소비자의 카드 사용 소비문화가 정착됐기 때문에 제도 도입의 취지를 충분히 달성했다고 볼 수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시행 만기가 도래할 때마다 재연장 여부를 놓고 논쟁이 있었는데 논쟁의 초점은 근로소득세 경감 효과에 있었다. 이 제도가 오랫동안 유지되면서 대표적인 서민 지원 세제로 인식됐고 이를 폐지하면 당장 서민 증세라는 인상을 줘 근로자들의 반발을 산 것이다. 이 제도가 폐지되면 소비자의 카드 사용이 줄어들어 자영업자의 탈세가 늘어날 것을 걱정하는 사람도 있다. 세금 혜택이 사라지면 카드 사용 유인은 줄어든다. 그렇지만 현금이 없어도 되는 편리함과 거래 기록을 남기는 장점이 있으므로 카드 사용 소비문화가 급작스럽게 변하지는 않을 것이다. 자영업자도 이미 국세청에 노출된 거래 정보를 다시 감추는 것에 따르는 위험 부담이 크기 때문에 무조건 현금 거래를 유도할 수만도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재연장하지 않는다고 해도 당장 세원이 많이 축소될 것을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

한편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정말 대표적인 서민 지원 세제인지도 의문이다. 2015년 기준 과세표준 1,200만 원 미만으로 소득세율이 6%인 저소득 근로자는 평균 12만 원의 세금 절감 혜택을 봤는데, 과세표준

8,800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35%의 소득세율을 적용받는 고소득 근로자의 경우 평균 96만 원의 세금 절감 혜택을 입었다. 소득이 높아 카드 사용을 많이 했을 뿐인데 여덟 배에 달하는 절세 효과를 누리는 것이 형평성 측면에서 좋은 제도인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폐지해도 근로자의 세금 부담을 줄여 줄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기부금 공제율을 올린다든지 연금저축 공제율을 높이는 방법으로 근로자의 지출을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정책이, 단지 결제 수단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세금 혜택을 주는 것보다는 더욱 효율적인 정책이 될 것이다.

* 공제: 일정한 금액이나 수량을 빼냄

[라] 우리나라가 덕을 쌓고 어진 정치를 베풀어 문(文)을 숭상해온 교화가 점점 땅을 쓸어버린 듯이 없어질까 두렵습니다. 예전부터 쓰인 이두가 비록 한자에서 벗어난 것이 아닌데도, 유식자들은 아직도 이를 천한 것으로 여겨 이문(吏文)*으로써 이를 바꾸려고 하였는데, 하물며 언문은 한자와 조금도 관련이 없는 것이며 오로지 시골의 상스러운 말에서만 쓰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설령 언문이 전조(前朝)**부터 있어 온 것이라고 하더라도 오늘날 문명의 정치로 보나 변로지도(變魯至道)***하려는 뜻으로 보나 이것을 그대로 물려받을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이를 바로잡겠다고 논의할 사람이 있을 것이니 이는 뚜렷이 알 수 있는 이치이옵니다. 옛 것을 싫어하고 새 것을 좋아함은 예나 이제나 다름없는 폐단이오니, 이제 이 언문이 다만 하나의 신기한 재주일 뿐이오며, 학문을 위해서도 손해가 되고, 정치에 있어서도 이로움이 없으니, 되풀이해서 생각해 보아도 그 옳음을 알 수 없사옵니다.

만일에 말씀하시기를 “형을 집행하고 죄인을 다스리는 말을 이두 문자로 쓴다면, 글의 내용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백성이 한 글자의 착오로 혹 억울함을 당할 수도 있겠으나, 이제 언문으로 죄인의 말을 직접 써서 읽어 주고 듣게 한다면 비록 매우 어리석은 사람일지라도 다 쉽게 알아들어서 억울함을 품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라고 하오나, 예로부터 중국은 말과 글이 같은데도 죄인을 다스리고 소송하는 사건에 원통한 일이 매우 많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할 것 같으면, 옥에 갇힌 죄인 가운데 이두를 아는 사람이 있어서 자기가 진술한 내용을 직접 읽어 보고 그 내용에 사실과 다른 점을 발견하더라도 매를 이기지 못하여 억울하게 승복하는 일이 많으니, 이로 보아 진술한 글의 뜻을 몰라서 억울함을 당하는 것이 아님이 분명합니다. 만일에 그러하다면 비록 언문을 쓴다고 하더라도 이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이로써 죄인을 공정하게, 또는 공정치 않게 다스리는 일이 옥리(獄吏)의 자질 여하에 달려 있는 것이지, 말과 글이 일치하거나 일치하지 않거나에 달려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언문을 가지고 죄인을 공정하게 다루려는 것이라고 하신다면, 신들로서는 그 타당함을 알 수가 없습니다.

* 이문: 조선 시대에 중국과 주고받던 문서에 쓰던 특수한 관용 공문의 용어나 문체

** 전조: 바로 전대의 왕조

*** 변로지도: 선왕(先王)의 유풍만 있고 행하여지지 않던 노(魯)나라를 변화시켜 도(道)에 이르게 한다는 뜻

□ 문 제 □

【문제 1】

제시문 [가]의 주장을 250자 내외로 요약한 뒤, 주된 견해나 관점이 [가]와 다른 제시문을 [나]~[라]에서 모두 찾아 [가]와 각각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시오. (600자 내외, 배점 30점)

【문제 2】

어느 학교에서 학생들의 취업을 돕기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의 이수 학생들에게 의무는 아니지만 학교가 전통적으로 권장해 온 것이다. <표 1>은 전년도 졸업생 중 이 프로그램의 이수자와 비이수자의 인원과 취업률을 각각 표시한 것으로, 이 학교의 A 교사는 이 표를 바탕으로 앞으로 학생들에게 이 프로그램의 이수를 의무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이 학교의 B 교사는 같은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또 다른 <표 2>를 제시하면서 A 교사의 주장에 이의를 제기하였다. B 교사가 이의를 제기한 근거가 무엇인지 추론하시오. 나아가 이번에는 B 교사의 이의 제기에 A 교사가 <표 2>를 바탕으로 반론을 제기할 경우, 프로그램의 효과와 관련하여 어떤 논거를 제시할 수 있을지도 추론하시오. (400자 내외, 배점 20점)

<표 1>

	인원(명)	취업률(%)
프로그램 이수자	1,221	41
프로그램 비이수자	516	29

<표 2>

학생들이 지원한 업종의 코드명	프로그램 이수자		프로그램 비이수자	
	인원(명)	취업률(%)	인원(명)	취업률(%)
K2	660	55	120	58
T1	115	11	132	13
S8	280	32	101	33
P7	126	21	96	25
Z5	40	10	67	12
합 계	1,221	-	516	-

* <표 1>과 <표 2>의 취업률은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수치임

【문제 3】

같은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미성년자는 아예 처벌을 하지 않거나 성년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미한 처벌을 하도록 규정한 것이 현행 법규이다. 이 법규의 존치 여부를 둘러싸고 현 상태로 유지하자는 입장과 이에 반대하여 수정 내지 폐지하자는 입장이 팽팽히 대립하고 있다. 현행 법규의 현상 유지를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가]~[라]의 모든 제시문을 활용하되 주된 견해나 관점이 자신의 입장과 같은 제시문의 논거는 지지하고 자신의 입장과 다른 제시문의 논거는 비판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하시오. (1,000자 내외, 배점 50점)